

# 탈산업 도시의 경관 진정성

신명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 1. 서론

국내의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재생과 재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을 통해 상실한 도시의 크고 작은 사회문화적 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정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경의 차원에서는 진정성 있는 경관을 계획, 설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시도된 바 있으며, 도시 사회를 배경으로 발전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진정성의 정제에 대한 탐구와 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관의 진정성에 주목하는 것은 그만큼 진정성의 상실 혹은 시뮬라크라(simulacra)와 같이 실재적 의미를 상실한 재생산(Baudrillard, 1988)에 대한 경계심이 도시 분야 전반에 걸쳐 공감을 일으키고 있음을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 경관 진정성이란 경관, 즉 주변 환경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문화적 심상(image)이 도시에 의미(meaning)와 가치(significance)를 부여하는 수 있는 동기가자 원인으로 해석된다. 경관 진정성을 도시가 지닌 작동 기제의 가시적 형태라고 본다면, 오늘날 도시의 문제점으로 종종 언급되는 경관의 동질화, 젠트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리즘 등 이슈는 문화 창업가, 도시재생 전문가, 지자체의 행정, 주민과 비주민 모두에 의해 경관 진정성이 형성되고 인지되고 활용되는 과정의 부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오늘날 경관 진정성 개념을 확장하여 이해하고 그 작동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탈산업 도시의 여러 문제점을 재해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경관 진정성을 연구하거나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 현대 도시 연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경관 진정성 개념이 탈산업 도시의 맥락과 현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도시에서 진정성이란 비단 물리적으로 오래된 것 말고도 새롭고 전례가 없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따라서 탈산업 도시의 경관 진정성에 대한 탐구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 경관의 진정성을 다루는 여러 분야의 연구를 정리하고, 현대 도시 경관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틀을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 경관 진정성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았다.

## 2. 경관 진정성 개념의 확장 및 작동

### 2.1 경관 진정성 개념의 확장

경관 진정성은 가시성(visibility)과 물질성(materiality)으로 인해 도시의 축적된 기표이자 기호로 작동하며 경관을 둘러싼 다양한 내러티브를 포괄적으로 뜻한다. 이에 따라 도시, 대중(소비자), 가시적 문화(visual culture) 등을 다루는 여러 분야에서 경관 진정성의 다양한 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도시를 해석하기 위한 연구관점으로 삼고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진정성 개념을 연구해온 문화유산과 관광학 분야에서는 장소의 관광 경험이 진정한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Jamal and Hill, 2004). 그러나 자본주의로 인해 모조와 소외가 진정성 경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의견(MacCannell, 1976)에 소비중심으로 형성된 장소라도 시간의 축적으로 인해 새로운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견(Cohen, 1979)이 제시되는 등, 관광의 대상이 문화유산에서 도시로 확장됨에 따라 장소의 진정성 경험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Vidon et al.(2018)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진정성의 획득이 불가능한 반면, 이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도시 경험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보고 경관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명시될 수 없음을 설명하기도 한다(Vidon et al., 2008; Ji, 2021). 반면 경관을 소비재로 보는 경향이 짙은 도시브랜딩과 소비자심리학 분야에서는 경관 진정성이 소비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한다. 문화유산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Gilmore and Pine(2007)는 진정성이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나아가 Schiefeling and Demetry(2021)는 오래되고(aged) 원형(original)임을 의미하는 문화유산학의 진정성이 지닌 의미를 벗어나 특이성(idiosyncrasy)과 인공성(artificiality)을 진정성의 새로운 척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리학,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 분야에서는 크게 실천의 진정성과 장소의 진정성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Fine(2003)는 진정성이 다름의 인지라고 설명하며 예술 및 설계 작품의 진정성에 예술가 및 설계가의 진정성 실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고 적었으며, Berrizbeitia(2013) 역시 과정중심적 조경 설계의 대두가 진정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장소적 맥락의 차원에서 진정성은 장소가 지닌 성질로 해석되며, 진정성에 대한 욕망이 장소성 상실에 대한 경계의 의미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Zukin, 2011; Piazzoni and Banerjee, 2018). 그러나 새로운 진정성 획득의 가능성을 소개한 Cohen(1979)과 같이, Ji(2020)는 진정성의 범주가 시대와 장소의 성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한다. 이처럼 진정성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는 가운데 조경 분야에서 시민참여와 산업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대두된다는 점은 주목할 지점이다(Shin et al., 2022).

### 2.2 경관 진정성 켜의 세 가지 유형

상기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탈산업 도시가 산업화가 낳은 다양성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범학제적임과 동시에 변화하는 도시 조건에 맞추어 경관 진정

성의 범주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이 확인된다. 특히 새롭게 생겨나는 도시경관의 진정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례로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산업폐허가 진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건축물이 지닌 유산으로서 측면이 아닌, 건축물에 쌓인 사회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Lyons, 2018). 즉, 산업시대 유산과 이 유산을 활용한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경관 진정성 척'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경관에서 존재하는 물리적-지표적(indexical) 성질을 바탕으로 한 장소특정적 진정성(site-specific authenticity)으로, 고전적 의미의 자연적 현상 또는 인공적 구조물에 시간이 축적되어 생겨난 척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구조적 진정성(constructive authenticity)으로, 인문지리학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장소와 인간 혹은 인류 사회의 관계로 인해 생겨난 척을 의미한다(김지나, 2016). 마지막으로 투영적 진정성(projective authenticity)은 다른 지역, 장소, 혹은 경관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시각적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 소비자의 상상으로 인해 투영된 척이다. 경관 진정성은 이처럼 다양한 척의 혼재로 존재하고 있으며, 구조 및 각 척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시간적 흐름 및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

### 2.3 경관 진정성의 작동과 중요성

일상의 미적 판단이 지닌 중요성을 역설한 Saito(2017)에 따르면 예상 가능한 성질(conformity)을 포함되는 모든 물체는 해당 성질을 기준으로 미적으로 경험된다. 달리 말하면 경관의 진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비자는 본인의 범주를 기준으로 경관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이처럼 주관적 상상력과 진정성 가치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경관 진정성은 미적 체험(aesthetic engagement)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징으로 인해 경관의 관람자, 혹은 소비자는 경관의 진정성을 미적으로 판단(aesthetic judgment)하게 된다. 정리하면, 경관 진정성은 특정 공간에서 경관 본래의 특질(authentic qualities)을 나타내는 가시적 재현이자 미적 판단의 결과이다. 여기서 특정 경관 재현을 진정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관 소비자의 인증 행위(authenticate)에 따른 것으로, 인증의 주체인 소비자가 변화함에 따라 경관 진정성 역시 변화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경관 진정성의 작동은 개인의 판단을 넘어 도시의 경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경관은 이미 도시브랜드의 주요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발달로 인해 경관 소비자의 선호는 산업과 관 주도의 여러 경관 조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조경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 조성 관련 산업의 전반에 존재하는 경관 진정성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의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분야의 노력”이 윤리적, 정치적, 환경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재조명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Saito, 2017: 149).

## 3. 경관 진정성의 적용과 부작용

경관 진정성의 실제 적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고자 상기 서술한 경관 진정성 유형을 분석의 틀로 삼아 통해 서울숲길 일대와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일대의 경관 진정성을 분석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직접관찰,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활용했다. 두 사례지를 분석한 결과, 경관 관련 정책, 행위자성, 동질성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경관 진정성의 다양한 쉼이 아닌 이미지를 위시한 투영 진정성 중심의 정책 실천으로 인해 경관 진정성의 다른 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도출되었다.

정책의 차원에서는 붉은벽돌 건물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서울숲길 경관이나 좁은 해안 길을 따라 바다를 감상하는 흰여울마을의 경관을 보존하려는 의지와 이를 바탕으로 보다 큰 상업적 가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혼재된 상황이 확인된다. 하지만 어느 특정 진정성 요소를 중심으로 도시경관 정책을 구성하는 경우, 기존의 다양한 경관 진정성 간에 위계가 생성되고 선별되지 못한 진정성은 사라지는 특성도 보였다. 특히 서울숲길의 경우 붉은벽돌 확대 정책의 근거를 지역 근대사로 설정하는 반면, 실제 지역사와 크게 관련되어있지 않아 인식적 오류를 일으킨다는 문제가 확인했다.

행위자성(agency)은 경관 진정성의 인증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해석된다. 기존 지역사 연구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사적 맥락과 진정성 요소를 도출한 반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두 지역은 이미 기존 도시 정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관광지로 부상한 상황이므로 앞서 서술한 정책적 문제로 인해 투영적 진정성이 우선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목할 것은 이런 투영적 진정성이 초반에는 특이성(idiosyncrasy)으로 인식되나 이후 시간 흐름에 따라 장소특정적 진정성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Cohen, 1979).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진정성 요소의 발현과 변화의 흐름을 시기적절하게 기록하지 못한다면 이후 경관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돌이키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탈산업 도시의 한계로 인해 경관의 동질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진정성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경관의 다양성을 살피고 의미 있는 요소를 보존하는 것이나, 오늘날 탈산업 미감에 대한 범국제적 선호는 탈산업적 조건을 지닌 도시 경관의 동질화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경관의 물리적 실재를 기반으로 한 장소특정적 진정성 요소를 중심으로 경관을 개선하거나 보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과정에서 투영적 경관 진정성의 쉼이 압도하게 된다. 특히 탈산업 도시의 경우 경관 진정성의 상징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적 요소가 실제 탈지역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경관계획 단계에서 다른 탈산업 도시와의 동질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즉, 경관 보존의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탈산업 경관의 속성으로 인해 동질화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이성을 통해 새로운 진정성 척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해볼 필요가 있다.

## 4. 결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에서 지식산업으로 계속해서 도시의 주요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도시의 구조와 경관 역시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경관 진정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관을 바꿀 힘을 가진 정책이 경관 진정성과 어떻게 결합되고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비판적 시선으로 고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정성 분석 틀을 구축하여 현대 도시 경관을 탐구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유연함과 변화무쌍함이 경관 진정성을 유의미하게 만들며 현대 도시의 경관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 영역으로써 경관을 연구해온 지리학과 조경학이 아닌 관광학과 경영학을 중심으로 최근 경관 진정성 연구가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확장하는 진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경관 연구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헌 분석은 추후 탈산업 도시의 경관과 진정성 연구의 다변화 및 학제적 확장을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지나(2016) 도시장소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분석: 서울 청계천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231-246.
2. Baudrillard, J.(1988) *Jean Baudrillard: selected writing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3. Berrizbeitia, A.(2013) On the continuing uses of the arbitrary. In Hunt, J. ed. *A Cultural History of Gardens in the Modern Age*.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pp. 13-36.
4. Cohen, E.(1979)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s. *Sociology* 13(2): 180-201.
5. Fine, G.(2003) Crafting authenticity: The validation of identity in self-taught art. *Theory and Society* 32(2): 153-180.
6. Gilmore, J. and J. Pine(2007) *Authenticity: Contending with the new consumer sensibility*.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7. Jamal, T. and S. Hill(2004) Developing a framework for indicators of authenticity.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9(4): 353-372.
8. Ji, M.(2020) *Becoming Gentrifier/d: Aesthetics, Subjectivities, and Rhythms of Gentrification in Seoul,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9. Ji, M.(2021) The fantasy of authenticity: Understanding the paradox of retail gentrification in Seoul from a Lacanian perspective. *Cultural Geographies* 28(2): 221-238.
10. Lyons, S.(2018) *Ruin Porn and the Obsession with Decay*. Cham: Palgrave MacMillan.
11. MacCannell, D.(1976) *The Tourist*.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2. Piazzoni, M. and T. Benerjee(2018) Mimicry in design: The urban form of development. *Journal of Urban Design* 23(4): 482-498.
13. Saito, Y.(2017) *Aesthetics of the Familiar: Everyday Life and World-Making*.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4. Schiefeling, T. and D. Demetry(2021) The new food truck in town: Geographic communities and authenticity-based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 Science* 32(1): 133-155.
15. Shin, M. and J. Pae(2022) Authenticity or homogeneity? Contextualising the urban revitalisation of a post-industrial landscape through the red brick landscape preservation project in Seoul. *Habitat International* 124: 102574.
16. Shin, M., J. Woo and H. Choi(2022) Designing a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long-term urban park development project. *PLoS ONE* 17(5): e0268804.
17. Vidon, E., J. Rickly and D. Knudsen(2018) Wilderness state of mind: Expanding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73: 62-70.
18. Zukin, S.(2011) Reconstructing the authenticity of place. *Theory and Society* 40(2): 161-165.